

野 “재정 확대” vs 정부 “방만 안돼”

기재위서 경기침체 공방...민주 “수출·세수 악화...재정 가장 필요” 추경호 “단기 부양위해 빚낼 상황 아냐...기업 투자 여건 조성 시급”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과 정부가 재정 확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방만 재정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며 “국민들은 경제가 ‘폭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순수출, 투자, 소비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데, 정부는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며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갈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수출이 확대되거나, 세수가 확대되거나, 재정 투자가 많아져야 성장이 지속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수출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재정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 0.2%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소신”이

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 우리 경제 체력을 키워나가는 구조적인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신중한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언하가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논의된 2022회계연도 결산 안전에 대해 “2022년 예산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정부와는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국고 보조금의 부당 불법 유용 사태에 도가 지나친 민간단체들이 있다”며 “적어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여야 의원 261명 참여 헌정사 최대...연내 본회의 통과 전망

광주의 숙원사업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헌정 사상 역대 최대의원 발의라는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됐다. 22일 광주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실 등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공동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km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국비)이 투입될 예정이며, 2030년 완공 목표다.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영호남은 1시간대 거

리로 가까워진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20대 대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2월 완료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8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달빛동맹’의 또 하나의 성과로 꼽고 있다. 군공항특별법 제정에 이어 광주시와 대구시가 함께 협력해 ‘철길’을 여는 제2호 특별법안이기 때문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은 올해 4월 본격 추진됐다. 두 지역 단체장들은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나 특별법 공동 추진에 뜻을 모았다.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달빛고속철도는 사람과 도시, 영호남을 이어 동서 화합이라는 목은 과제를 해결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과 나아가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김남국,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윤리특위 소위 '가상자산 보유' 징계 결정 30일로 연기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

이어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쯤개고 쯤개어 안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더 자주 찾아 뵙고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애초 22일로 예정됐던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가 30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흉악범 전담 교도소·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문지마 범죄 당정협의...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000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

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흥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이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흥기 소지죄 관련 법안은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미래차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전기자동차나 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차 산업 특별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연구·개발

(R&D)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미래차 부품 업체로 복귀할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시장수요·판로·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군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이를 심의·조정할 산업부 장관 소속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설치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흡수합병공고
(제한이익 및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9호(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초포태광은 2023년 8월 22일에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의 권리부 일체를 승계하고 "갑"은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각 주주께서는 각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갑"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9호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대표이사 윤정택
"을" 주식회사 초포태광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우실애안길 23-2
사내이사 김형근

분할합병공고
2023년 8월 21일 주식회사 하이원(갑)과 주식회사 성도이엔지(을)은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재산(영역)의 일부(전기공사사업 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갑" 주식회사 하이원
광주광역시 북구 풍문대로 50, 106호
(두암동, 동강대학교산학협력관)
대표이사 변옥주
"을"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로299번길 9
(백전동)
대표이사 조경록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